

'파죽지세' 셰플러, 마스터스 이어 시즌 4승 사냥 나선다

18일 개막 PGA 투어 RBC 헤리티지...임성재·안병훈 등 출전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18일(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 달러)에 출전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허버타운 골프장(파71·7213야드)에서 열리는 RBC 헤리티지는 올해 PGA 투어의 다섯 번째 시그니처 대회다.

PGA 투어의 시그니처 대회는 1년에 8차례 열리는 특급 대회로 총상금 2000만 달러(약 277억원)가 걸려 있고, 지난 시즌 페덱스컵 랭킹 상위 50위, 세계 랭킹 30위 이내, 올해 투어 대회 우승자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15일 끝난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 셰플러다.

셰플러는 최근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우승 세 번, 준우승 한 번의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마스터스 기간 대회 도중 기권 가능성을 내비쳤던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도 아내 출산 시기가 그의 우승 여부를 좌우할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시즌 9개 대회에 나와 한 번도 오버파 라운드도 없었던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는 셰플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공동 11위에 올랐다.

지난해 RBC 헤리티지에서는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이 조던 스피스(미국)와 연장전을 벌여 우승했다.

피츠패트릭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이후로는 지난해 8월 BMW 챔피언십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컷 탈락한 스피스는 이 대회에서는 2022년 우승, 지난해 준우승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마스터스에서 컷 탈락한 선수로는 스피스 외에 임성재가 이번 대회에서 반등을 노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7위로 선전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를 마치면 24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른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도 주목할 선수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DP 월드투어 우승 1회의 성적을 낸 1999년생 오베리는 자신의 메이저 대회 데뷔전을 준우승으로 장식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외에 안병훈, 김시우, 김주형 등 마스터스에도 출전했던 선수들이 나온다. 안병훈은 마스터스 공동 16위로 선전했고 김시우와 김주형은 나란히 공동 30위에 올랐다.

RBC 헤리티지에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위해 같은 기간 코랄레스 폰타카나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이 도미니카공화국 폰타카나의 폰타카나 리조트 앤드 클럽(파72·7670야드)에서 진행된다.

배상문, 강성훈, 김성현, 이경훈이 이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함께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셰플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소년체전 경기장 점검

5월 13일까지 67개 경기장

전남도체육회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장애학생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5월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67개 경기장에서 현장점검 및 임시시설물 설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참가하는 두 대회의 특성을 반영해,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게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등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경기 종목단체, 시·군, 용역업체 등 기관 관계자들은 경기장이 열리는 67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수들과 관람객이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8개 시·군 10개 경기장의 개·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수영 꿈나무들, 제주한라배서 20개 메달 획득



화순오성초등학교 선수들.



영암초등학교 선수들.

여수한려초·영암초·화순오성초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19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했다.

전남 선수들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8개를 획득했다.

여수한려초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여자유원부 자유형 50m와 100m에 출전한 임지율(4학년)이 금메달과 동메달, 김루아(3학년)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임소은(4학년)은 여자유원부 평영 50·100m에서 2관왕에 올랐다. 남자

초등부 김석호(6학년)는 자유형 1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영암초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정운(6학년)은 남자초등부 배영 50m와 100m에서 은메달과 금메달, 여자초등부 평영 50m와 100m에 출전한 문승유(5학년)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화순오성초 유하진·박태민·조운호(이상 6학년)·이지성(5학년)이 남자초등부 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합작했고, 박태민이 평영 1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하솔(3학년)은 남자유원부 평영 50·100m에서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장성사창초 정근민(5학년)은 남자초등부 자유

형 400m에서 2위에 올랐다.

최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민섭의 모교인 여수문수중도 메달 행진에 함께 했다.

남자중학부 자유형 800m에서 김태영·박은결(이상 3학년)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박은결이 자유형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고태경(3학년)은 여자중학부 자유형 5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전국대회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체육을 이끌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체전 오늘부터 영광서 개최

22개 시·군 7314명 선수 참가...최고령·최다 출전 등 이색 선수 눈길



전남체전 최고령 참가자 89세 김재곤(왼쪽부터), 최연소 참가자 17세 박성연, 최다 출전자 김동욱.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영광에서 열린다.

이번 전남체전은 22개 시·군 73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배구 등 22개 정식 종목과 사범종목 축구, 그리고 영광군이 시행하는 전시종목인 게이트 볼까지 총 24개 종목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과 편의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 또한 선수단과 관광객이 전남체전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부대 행사존, 스포츠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대표선수들중엔 최고령·최연소 및 연속 출전 선수, 다양한 가족 체육인 등 이색선수들도 눈에 띈다.

나주시 대표 김재곤은 올해 89세 나이로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다. 그는 소프트테니스 단체전에 출전해 그간 운동을 통해 다져온 건강함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번 대회 최연소 타이틀을 얻은 참가자는 목포시 대표로 복싱에 출전하는 17세 박성연이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3회 연속으로 전남체전 영광시 마라톤 대표로 출전하는

김동욱은 '최장기간 출전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보성군에선 전승기·강현자·전경호·전경현 가족이 자전거 경기에 출전한다.

이외에도 수영에 광양시 대표 설수정·설지선 쌍둥이 자매, 유도에 목포시 대표 박한영·박한별 등 가족관계 선수 33팀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나선다.

스타급 선수들도 전남체전에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전 불링 국가대표 최복음과 백종운·구수형(이상 광양),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위진아(여수)를 비롯해 현 국가대표 불링 백성민(광양)과 상비군 김현미(곡성), 수구 국가대표 설치선(광양), 당구 김행직(진도), 서서야(담양)가 대회에 나선다.

여기에 여자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 전국체전 포환던지기 '9연패' 정일우(여수)와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차민수, 최성환도 출전해 전남체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한편,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올해로 63회를 맞은 전남체전 개막을 축하하며 "안전하고, 도민 모두가 즐길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배구연맹, 구단주 간담회 열고 V리그 현안 점검

한국프로배구 구단주들이 모여 한국 배구 발전에 대해 논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구단주 간담회를 열었다"며 "구단주들은 V리그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배구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2020년에 처음 한 구단주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재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자부 4개 구단과 여자부 3개 구단이 참석해 2023-2024시즌 관중과 시청률, 아

시아쿼터 현황, 공인구 변경, 국제대회 교류 성과 등을 살폈다. 또한 실행 및 논의단계에 있는 AI 비디오 판독 시스템 개발, 코치 해외연수 프로그램, 2군 리그 추진, 국제 교류 사업 추진 등 향후 배구 발전을 위한 논의도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쿠푸팬더4
2관	파묘
3관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
4관	남은 인생 10년
5관	넷플부대
6관	쿠푸팬더4
9관	오맨: 저주의 시작
7관 씨네키움	쿠푸팬더4, 아서, 오맨: 저주의 시작
8관 씨네키움	[분석특가]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고질라 X 공: 뉴 엔파이어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4월

광주예술의전당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